2026. 5. 11

금융 Weekly Insight

증권주 급등 – 이제는 K-주식이다!

리서치센터 리포트 바로가기

▶ 리서치센터 금융/소비재팀
2026년 5월 둘째 주

김재우 팀장, Senior Analyst jaewoo.kim@samsung.com
정민기 Analyst mingi.jeong@samsung.com
윤희재 Research Associate heejae23.yoon@samsung.com

- KOSPI 지수 상승 속 은행 1.4% 하락, 증권, 보험업종 각각 17.2%, 6.1% 상승.
- 금융업종 내에서 두드러진 상승폭을 보인 것은 증권업종. 증권주 급등의 원인은 주초 통합계좌를 통한 해외 개인투자자들의 국내 증시 유입 기대감 형성에 따른 것으로 판단.
- 한편 이번주에는 증권과 보험업종의 실적 발표가 집중되어 있는 가운데 증권업종은 2분기 실적의 1분기 능가 가능성에, 보험업종은 회사별 자본정책 변화 여부에 시장은 집중할 것으로 예상.

금융 Overview

- 은행 – 매크로 리스크 및 포용금융 관련 이슈가 우려로 부각: 은행주는 1.4% 하락세 시현. 중동 지역의 협상이 명확한 결론에 이르지 못한 만큼, 매크로 리스크가 여전히 부담으로 남아 있는 가운데, 국내외 물가 상승 및 소비심리 악화 등에 대한 지표가 부담 요인으로 작용. 더 나아가, 은행들의 포용금융 강화에 대한 이슈가 제기되며 은행들의 공적 기능 강화에 대한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 물론, 현재의 금융시장 양극화는 분명 사회 동력 및 안정성에 대한 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필요하다고 판단. 다만, 이는 은행 개별 노력보다는 시스템적 개선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 실제로, 여러 언론 보도에 따르면 관계자 및 전문가들은 신용평가의 정교함 제고를 위한 정보 공유 및 활용처 확대, 국내 은행들에 적용되는 CET-1 비율 13%의 완화 필요성, 향후 손실 부담 완화를 위한 보증 강화 등 시스템 측면에서의 보완 없이 은행만의 노력으로는 어려울 것이라 전망. 더 나아가, 금리는 가격이라는 대전제와 기존의 신용등급 제고를 위해 노력해온 선의의 차주들에 대한 고려 또한 금융 시스템 안정성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는 점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 결국, 정부가 제시한 어젠다는 단기간에 변화를 가져오기 보다는 보다 면밀한 논의와 시스템적 측면에서의 개선 노력을 통해 중장기적 논의 시작이라는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
- 증권 – 통합계좌 이슈로 급등: 증권 업종 주가는 17.2% 상승하며 KOSPI를 크게 아웃퍼폼. 주초 해외 대형 증권사와 통합계좌 비즈니스 개시 뉴스가 보도되며, 외국인 개인투자자들의 증시 유입에 따른 수급 기반 확대 기대감이 확산되며 증권업종 주가 상승세를 이끌었음. 이에 더해 KOSPI 7,500pt 돌파하는 등 국내 증시 초강세에 힘입어 증권 업종 투자심리는 어느 때보다 강력한 상황. 금주 대형 증권사(미래, 한투, 삼성 등)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당초 1분기 실적 이후 Peak-out 우려가 존재하였으나, 최근의 증시/거래대금 강세로 증권업종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재차 상승할 것으로 기대. 비즈니스 관점에서는 1) 외국인 통합계좌 개시 이후 실제 Flow 유입 여부의 체크 및, 2) 고객자산 확보 관점에서 퇴직연금, RIA, ISA 등 장기성 자금 흐름 여부가 될 것으로 판단.
- 보험 – 본업 외 모멘텀이 지배: 보험 업종은 w-w 6.1% 상승하였으나, 전자 지분 가치 상승 영향이 존재하는 삼성 계열사 (생명 +18.2%, 화재 +8.2%)를 제외하면 정체된 흐름을 시현하였음. 주중 중동 발 선박 피해 리스크, 자동차 보험 손해율 원가 상승 뉴스 등 본업에 비우호적인 뉴스 플로우가 지속된 데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 이번 주 보험사들의 1분기 실적발표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시기 상 대규모의 주주환원, 자본정책의 변화가 예상되지 않는다는 점 또한 보험업종에 대한 관심을 제한하는 요소. 다만, 장기채 금리 흐름이 보험업종에 우호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며, 이는 보험사 별 부채규모 및 K-ICS에 우호적일 전망.

1.1 지난주 주요 뉴스 점검

Sector	News	Implication
은행	**(5/3) 우리은행 인도네시아 충당금 1380억 선제 적립 후 2분기 반등 추진** - 우리은행은 1분기 중 인도네시아 법인에 1380억원의 추가 충당금을 적립. 참고로 인도네시아 우리소다라은행은 24년 568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했으나, 25년 741억원의 순손실 기록. 우리은행은 회계법인의 선제적 충당금 적립 권유로 해당 적립금을 과감하게 적립하였다고 언급. - 우리금융은 2분기부터 반등을 추진. 선제적 해외 충당금을 적립한 가운데, 우리금융의 CET-1 비율이 13.6%로 급등, 기업 여신 영업 강화가 가능해졌기 때문. 실제로 동사는 5월 3일 미국 오하이오주 화력발전소에 1.1조원 규모의 자금 재조달 금융주선을 완료. 해당 발전소가 4월 15일부터 본격 가동을 시작, 건설 단계 대출금을 장기 시설자금으로 전환하는 금융을 주선하였으며, 이에 KB와 우리은행이 공동으로 2.3억 달러 규모의 장기 시설자금 대출과 운영자금 한도 대출을 시행.	**1분기 실적은 아쉬웠으나…:** 우리금융의 1분기 표면적인 이익은 아쉬운 부분. 3대 금융지주가 모두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 연이어 실적 개선을 시현한 반면, 동사는 충당금 및 ERP 부담 등이 추가되며 상대적으로 저조한 이익을 시현했기 때문. **하지만, 자본비율 급등에 초점 필요 - 여신 성장과 주주환원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 기대:** 하지만 CET-1 비율이 70bp q-q 급등, 13.6%를 기록한 점에 초점 필요. 이를 기반으로 동사는 보다 기업금융 강화가 용이할 전망인 것은 물론, 생보사 잔여 지분 확보 및 통합, 비은행 부문 추가 출자 통한 영업력 강화 등은 물론, 주주환원 강화까지도 동시에 이행할 수 있는 역량이 제고되었기 때문.
	(5/3) 청와대 정책실장이 쏘아올린 금융양극화 해소의 쟁점 분석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3일까지 사흘간 세 차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현행 신용평가 체계의 허점과 중저신용자 금융시장 배제 문제를 제기. 이른바 시스템을 고쳐야 한다는 금융구조론. 이를 5대 쟁점으로 나눠 해당 기사는 분석. **- 논지 1. 신용등급은 과거의 잔상:** 신용등급은 과거 연체 이력과 금융거래 기록에 과도하게 의존. 금융 이력이 부족한 thin-filer는 실제 상환 능력보다 불리하게 평가 가능. 반론: 과거 정보는 신용 평가의 핵심. 특히, 안정적 금융 궤적은 차주가 장기간 쌓아온 신뢰의 기록. 해외도 이를 핵심 지표로 활용. **- 논지 2. 왜 절박한 사람이 비싼 이자를?:** 취약차주가 고금리 대출이나 불법 사금융으로 몰리는 것은 불합리. 반론: 신용대출 금리는 차주의 절박함이 아닌 상환 가능성, 예상 손실률, 회수율 등을 반영하여 결정. 고위험 차주에게 높은 금리가 붙는 것은 시장의 가격 기능인 것. 정책실장 또한 위험은 실재하고 그에 따른 가격표는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음. **- 논지 3. 가운데만 뚫린 도넛:** 고신용자와 저신용자간 양극단으로 시장이 나뉘어 있고, 중간 신용층은 비어있다는 것. 반론: 중금리 시장이 커지지 않는 이유는 저수익, 고관리 시장. 즉, 비용은 높은 반면, 이를 금리에 반영하기 어렵다면 은행은 해당 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어렵다는 논리. 은행 관계자는 해당 시장을 키우려면 손실분담, 보증, 자본규제 조정 등이 함께 설계되어야 함을 역설. **- 논지 4. 인터넷은행이 체리피킹:** 인터넷은행이 출범 당시 취지와 달리 우량 차주 중심 영업에 치우치고 있다는 것. 반론: 인뱅 관계자는 기존 평가로 배제된 차주를 대안 신용평가 등을 통해 얼마나 정확히 선별했느냐가 중요하다고 설명. **- 논지 5. 끊어진 시장을 다시 잇자:** 기존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난 중저신용차에게 상환 능력에 맞는 대출 기회를 열어줘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 반론: 결국 그만큼 관련 비용이 금융사, 보증기관, 재정, 다른 차주로 전가 불가피. 특히 성실하게 신용을 관리해온 고신용자는 선의의 피해가 발생 가능. 더 나아가, 가계대출 관리 강화 기조와도 상충.	**기존 제도권 금융에서 소외된 차주에 대한 보호 기능 강화는 분명 필요:** 사실 이는 한국만의 이슈가 아닌 글로벌 통용 이슈. 즉, 소위 중저신용 차주 혹은 thin-filer들이 제도권 금융에 편입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자금 사정을 개선하는 것이 궁극적인 금융의 역할이며, 나아가 이는 사회의 안정화 및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 **금융, 핀테크, 테크핀 등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였으나…:** 이에 금융사들은 물론 핀테크, 테크핀 등이 지난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대안 신용평가 등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이는 소기의 성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 **여전히 한계는 존재 - 대손에 대한 고민:** 하지만, 여전히 한계는 존재. 결국, 금융 기능을 제공하고, 이에 따른 대손 리스크 부담을 지는 것은 온전히 금융사의 몫. 위의 노력들이 적용과 동시에 완벽한 성과를 낸다면 모르겠지만, 인뱅들의 중저신용차주 대출은 물론, 해외 핀테크 기업들의 BNPL 등은 지난 22년부터 시작된 금리 급등 구간에서 급격한 충당금 상승을 경험. 실제로 케이뱅크의 대손비용률은 2%, 카카오뱅크가 1%가까이 치솟기도 하였던 점이 이를 방증. 이는 대안신용평가 등이 여전히 과도기인 점도 고려되어야 하지만, 코로나19, 러-우전쟁에 최근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블랙 스완의 일상화에 기인하는 바 또한 크다고 판단. **그리고 대손 증가는 여신 확대 여력의 축소로:** 블랙스완의 일상화는 단순히 중저신용차주에만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님. 이는 일반적인 여신은 물론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믿었던 부동산 금융의 부실까지도 야기했던 것이 사실. 결국, 금융사들의 입장에서 이와 같은 충당금 비용 증가는 여신 확대 여력의 축소로 귀결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보다 보수적 리스크 관리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 가능. **"금리 = 가격"이라는 대전제는 불변:** 더 나아가, 금융 상품에 있어 금리는 가격이라는 대전제는 변할 수 없다고 판단. 각 차주들이 자신의 개인신용점수를 확인하는 것이 용이해진 만큼, 이들은 스스로 신용점수 제고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사실. 결국, 이러한 노력을 기울인 선의의 차주들이 오히려 가격 측면에서 역차별을 받을 경우, 금융산업의 가격 산정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훼손될 수 있고, 이는 궁극적으로 가격이 상품 시장에서 제기능을 하지 못함을 시사할 수 있기 때문. **결국 시스템 측면에서의 보강 필요성이 대두 불가피:** 결국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언론에서 제기된 바와 같이 시스템 측면에서의 접근이 불가피. 즉, 해당 대출에 대한 신용 보강, 보증 등의 기능 강화는 물론, 금융사들의 대안신용평가 역량 강화를 위한 정보 접근 가능성 제고 등의 규제 완화 등도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다음 페이지에 계속)

Sector	News	Implication
은행	**(5/4) 소득과 신용등급은 반드시 비례하지 않는다** -신용도가 낮은 사람에게 낮은 금리를 책정하면 부작용이 따를 수 있음. 금리는 상환 이력과 연체 가능성 등 신용위험을 반영. 이 구조를 뒤집으면 금리 왜곡과 여신 공급 위축을 야기 가능. - 이미 은행권에서는 정부정책 기조에 따른 금리 역전 현상이 이미 확인 가능. 5대 시중은행의 신용한도 대출금리는 초고신용자가 3월 평균 4.76%로 25년 6월 4.42%대비 상승한 반면, 651~700점 구간은 같은 기간 5.71%에서 5.49%로 하락하였고, 600점 이하 대출자의 금리가 초고신용자보다 낮게 책정된 사례도 확인 가능. - 또한, 지난 해 기준 소득 상위 30% 가운데, 신용점수 840점 이상 고신용자는 674만명이지만, 연소득 2100만원의 소득 하위 30%에서도 고신용자가 202만명에 달함. 반대로, 신용점수 664점 이하 저신용자 중 고소득자는 43만명으로 저소득자 34만명을 상회. - 결국 저소득층 중에서도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고신용 차주의 이자부담이 오히려 늘어나는 역차별 소지가 있음을 인지 필요.	**이미 현재의 신용등급 산정 체계는 복합 요인들을 고려 - 개인들의 신용등급 제고를 위한 노력이 반영:** 기사에 제시된 사례와 같이 이미 현재의 신용등급 체계는 단순히 소득과 개인의 재산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안들을 복합적으로 반영. 물론, 현재의 신용 등급이 완벽하지는 않다고 판단되는데, 이는 여전히 과거 신용 데이터를 기반으로 두고 있기 때문. 하지만, 이와 같은 Rule이 이미 setting된 상태에서 해당 Rule에 맞춰 저소득 차주들 또한 연체 없는 자금 상환 등을 통해 신용점수를 높여왔고, 최근에는 금리인하 요구권 등의 제도가 뒷받침되며 이들에게 적용되는 대출금리를 낮추는 시스템까지 보강되고 있다는 점은 고려 필요. 이와 같은 기존의 틀을 뒤흔들 경우, 이는 오히려 시스템에 대한 신뢰 저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
	(5/5) 2026 KB금융 부동산보고서 - 주식이 처음으로 부동산보다 매력적 투자자산으로 -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는 2026KB부동산 보고서를 발간. 이는 130여명의 부동산 시장 전문가와 500여명의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실시된 4월 설문조사에 기반. - 부동산 시장 상승을 예상한 전문가 비율은 3개월 만에 81%에서 56%로, 공인중개사는 76%에서 46%로 하락. 이들은 고강도 규제를 이유로 꼽았으며, 세금 부담이 이 중 핵심. - 반면, 전세가격은 공급 부족으로 상승을 전망. 전문가와 공인중개사 중 83%및 85%가 상승을 예상. - 월세 비중 상승도 확대를 전망. - PB대상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최대 유망자산으로 주식 34%, 부동산 23%, 펀드 16%를 꼽았음. 이 연구소가 2018년부터 보고서를 발간한 이후 주식이 1위를 차지한 것은 처음. 지난 해는 채권의 29%로 1위였음.	**부동산 시장 가격 전망 부정적 - 증시에 대한 Flight-to-yield 지속 기대:** 기존 가계 자산은 절반 이상이 부동산 투자로 구성. 하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이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질 경우, 주식 시장으로의 가계자산 구성 변화는 이어질 여지가 크다고 판단. **주거비용 상승은 부담 요인 - 개인 퇴직연금에 주목 필요:** 다만, 전월세 가격의 상승 및 전세의 월세화는 결국 가구의 주거비용 상승을 초래. 이는 투자여력 혹은 소비여력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부각 가능. 참고로, 당사는 이러한 환경 하에서 주목할 것은 퇴직연금이라 판단. 개인의 투자한도가 제한되는 상황 하에서 노후 준비를 위한 재산 증식에 있어 현재 안전자산 중심으로 구성된 퇴직연금을 보다 주식시장 중심 포트폴리오로 재구성할 유인이 높아지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
	(5/5) 대출 크레바스 없앤다지만 지속 가능 모델 설계 필요 - 지금까지 수많은 정책 노력에도 불구, 금리와 대출 공백 구간인 크레바스가 존재. 3월 기준 가계 소액 신용대출 평균 금리는 신규 기준 6.03%이지만 저축은행은 15.67%, 카드론은 13%대. 은행에서 한 자릿수 금리로 대출을 받지 못하면 갑자기 금리가 10%대 중후반으로 급등. 즉, 신용평가 체계와 신용등급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 - 문제는 지속 가능성. 저신용자 대출은 경기 둔화 시 한 번에 부실화하는 경향이 높음. 정부가 내년부터 5년간 9.4조원을 서민금융안정기금에 출연, 저신용자 대출 확대 시 약 3.4조원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서금원의 판단. - 기본대출도 정부 부담이 불가피. 향후 연체 증가 시 운영 주체 부담 역시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음. - 이에 전문가들은 금융 생태계 복원 필요성을 주장. 일본과 같이 은행이 대부업을 자회사로 두는 사례나 저축은행에 BIS비율 대신 새 지표 적용 등이 거론.	**대출 절벽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졌으나 결과는 비용 급증에 따른 금융권의 수익성 악화:** 22년 금리가 급등하면서부터 중저신용차주를 중심으로 자산건전성이 빠르게 악화. 물론, 일부 저축은행이나 2금융권은 PF부문에서의 부실이 문제가 된 것도 사실. 하지만, 개인 신용을 중심으로 영업을 영위하는 카드사들의 경우, 대손비용률의 상승으로 인해 ROE가 10%도 채 되지 않는 현실은 분명 고려할 필요가 있음. **금융사는 높은 레버리지 및 신용 중심 산업 - 금융사도 돈을 빌린다:** 금융사는 대출을 하기 위해 본인 또한 다른 곳으로부터 예금이나 은행채, 차입금 등의 형태로 돈을 차입. 문제는 대손비용률의 상승이 이례적으로 나타날 경우, 해당 기업에 대한 차입 비용률이 높아지는 문제가 초래된다는 점. 이는 궁극적으로 기존의 차주들에게 비용 전가로 이어지게 되고, 이에 차주들이 보다 낮은 금리를 찾아 떠날 경우, 해당 금융사는 자산 축소 혹은 수익성 악화가 수반될 수밖에 없음. 특히, 레버리지 비율이 높은 만큼, 작은 구멍도 급격히 커질 수 있음은 수년 전 Credit Suisse의 사례에서 이미 확인 가능. **지속 가능 모델 설계 필요성 공감 - 관건은 HOW?:** 결국 지속가능한 모델을 설계하여 신용도 만큼 적정한 금리를 받을 수 있고, 더 나아가 해당 신용도 또한 과거의 상환 여력은 물론 미래의 상환 여력까지도 충분히 반영된다면, 사회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은 물론 활력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효과가 기대. 다만, 관건은 HOW? 일 것. 특히, 한국의 금융시장은 개방된 시장으로써 일부 금융사의 급격한 건전성 및 자본적정성 악화가 실질적인 금융 시장 영향을 야기할 수 있다는 리스크 등이 고려된 시스템 구축이 향후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

(다음 페이지에 계속)

Sector	News	Implication
은행	**(5/6) 대통령, 포용적 금융에 드라이브** - 대통령은 청와대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금융기관의 공공성이 너무 취약하다고 언급. 앞서 정책 실장은 SNS에 금융의 구조 시리즈라는 제목으로 네 차례 글을 올린 가운데, 이에 대해 대통령은 실장은 권한이 있으니 뜻대로 하라고 힘을 실어줬음. - 더 나아가, 대통령은 포용금융은 금융기관의 의무이며 반 이상 공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언급. 청와대 관계자는 현재의 금융시장 양극화는 비정상적이며, 이러한 상황 개선 논의를 띄운 것으로 이제는 해결책 고민 필요성을 언급. - 금융지주 관계자는 이는 고민해야 할 이슈임은 사실이나, 개별 금융회사가 혼자 해법을 찾기에는 구조적으로 어려운 주제라고 설명.	**금융시장의 양극화 완화 필요성은 분명 존재:** 금융시장의 과도한 양극화는 사회 동력 및 안정성 측면에서 부정적인 것이 사실. 특히, 수십년 전 한국 경제가 제한된 재원을 기반으로 성장이 우선시되어야 했던 시대와 달리 사회에 유동성이 상당 부분 풍부해진 현 시점에서는 분명 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판단. **다만, 문제의 시작점은 금리와 부실률, 그리고 정보의 관계:** 다만, 이와 같은 문제점이 벌어진 시작점은 금리 절벽 혹은 크레바스. 그리고, 그 이면에는 중저신용 차주의 높은 부실률과, 해당 중저신용 차주 내에서 보다 정밀한 신용평가를 위한 정보의 부재 혹은 정보 공유를 제한하는 규제. 결국, 이는 현재의 시스템 측면에서는 분명 한계가 존재함을 의미.
	(5/6) 은행 자본비율 제고 요구와 중저신용자 대출 증가요구는 모순 - 은행에 대한 포용금융 강화 요구 문제 제기는 위험가중자산 (RWA) 증가를 야기 불가피. 같은 1조원 대출을 실행하더라도 고신용 주담대보다 중신용 신용대출과 담보가 부족한 중소기업 대출의 위험가중치가 더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인 현실. 결국, 같은 금액을 대출해 주더라도 포용금융 강화는 CET-1 비율을 더 빠르게 떨어뜨리는 압력으로 작용. - 은행권이 특히 문제 삼는 것은 CET-1 비율 13% 안팎의 관리 감독 기준. 바젤 III 상 CET-1 비율 기존 기준은 7%이며 국가별 추가 기준을 부과. 일례로, 일본은 8%를 적용. 국내는 일반 은행 8%, 은행계 금융지주에 9%를 요구. 그러나, 실제 감독에서는 13%가 배당과 주주환원, 자본정책 기준선처럼 작동. 명시적 법규는 아니지만, 이 선을 밑돌면 감독당국 압박이 커진다는 것이 금융권의 설명. -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CET-1 13%가 금융권 정답인 것처럼 변질된 것은 문제. 이런 구조에서는 중소기업과 중신용자 대출 확대를 주문해도 자본비율 방어를 먼저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	**CET-1 비율 13%에 대한 적정성 고민 확대 전망:** 사실 국내 은행들에 적용되는 주주환원 강화 자율성을 부여받기 위한 CET-1 비율 13%는 전세계적으로 봐도 높은 수준. 실제로 미국과 일본은 주요 은행들을 중심으로 10% 내외 수준이며, 유럽 주요은행들은 12~13%를 상회하는 부분은 잉여자본으로 간주, 주주에게 환원. 참고로, 유럽 은행들의 경우, 스페인계 은행들은 40% 내외의 자산이 환율과 경제적으로 리스크가 높은 중남미에 치중되어 있고, 일부 은행들은 러시아, 튀르키예 등 유럽 내 리스크가 높은 지역들의 자산이 전체 포트폴리오에 혼재되어 있음. 즉, 국내 은행들은 대부분의 자산과 부채가 국내에 집중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은행들보다 높은 자본비율을 요구하는 것이 적합한가에 대한 고민이 높아질 수 있다고 판단. **더 나아가 미국 은행들은 CET-1 비율 규제 완화가 진행형 - 정부의 은행 유동성 공급 강화에 발맞춰 규제 완화 시행:** 더 나아가, 트럼프 정부 이후 미국 은행들에 대한 CET-1비율 규제 완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 초점 필요. 이는 트럼프 정부가 은행들로 하여금 유동성 공급 강화를 요구한 것에 기인. 일례로, 지난 해에도 미국 국채 금리가 급등함에 따라 정부는 은행들의 자본비율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은행들이 국채를 매입할 수 있는 여력을 확대한 것은 물론, Basel III 최종안의 적용을 앞두고 은행들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현재 은행과 논의 중에 있음.
	(5/8) 2금융권 예금금리 16개월 만에 최고 수준 - 저축은행 중앙회에 따르면, 79개 저축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금리는 3.24%로 한 달 사이 5bp 상승하였으며, 이는 25년 1월 3.33% 이후 최고 수준. - 현재 시중은행 평균 예금금리 2.54%와 차이는 0.7%p까지 확대. 저축은행 관계자는 보통 0.5~0.8%p 격차가 날 경우, 금리 민감도가 높은 고객 자금이 이동하기 시작한다며, 업계가 고객 붙잡기에 나선 것으로 해석. - 이는 주식시장 활황에 제2금융권이 수신 방어에 나선 것으로 분석. 2금융권은 시중은행보다 자금 조달 구조가 약하기 때문.	**은행과 다른 2금융권 - 수신 고객 기반의 차이도 고려 필요:** 은행에 비해 2금융권인 저축은행과 상호금융권의 금리 인상이 크게 나타나는 부분은 수신 고객 기반의 차이에도 일부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 은행은 1) 결제성 자금인 저원가성 수신은 물론, 2) 현재 전체 수신 잔액 중 60% 이상이 기업과 공공 및 기타가 차지하고 있음. 반면, 2금융권은 수익성에 민감한 개인자금 비중이 높은 것으로 추정. **수신금리 상승 - 결국 은행 수신과 여신 금리에도 영향 가능:** 현재와 같은 상황이 보다 심화될 경우, 결국 은행 또한 일부 수신 금리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코픽스 금리 상승 및 이에 연동된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것. 더 나아가, 향후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물가 및 금리 환경도 금리 하락보다는 상승에 무게를 두는 쪽으로 움직일 수 있음을 고려 필요.

Sector	News	Implication
증권	**(5/7) 코스피 시총 6,058조 세계 8위·외국인 비중 6년 최고…빚투 36조 사상최대 돌파** 코스피 시가총액이 6,058조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하며 국내 증시가 글로벌 8위로 부상. 외국인 보유 비중이 6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라서며 글로벌 자금 유입이 구조적 상승세로 이어지는 양상. 동시에 신용융자(빚투) 잔고가 36조원을 돌파하며 사상 최대치 경신 지속. 미성년자 ETF 투자도 5대 증권사에서만 30만명을 돌파, 증시 저변 확대가 전 연령층으로 확산 중.	**증시 초강세 속 증권업종 위상 변화에 주목:** 외국인 순매수 강화는 시장 유동성 확대와 주가 레벨업으로 이어지며 증권사 브로커리지·운용 수익에도 직접 기여, 글로벌 세일즈 역량 보유 대형 증권사 수혜 차별화 전망. 빚투 36조 사상 최대는 투자자 저변 확대의 긍정적 신호이나, 증시 조정 국면에서의 반대매매 리스크를 내포하는 양날의 검. 신용잔고 추이와 증시 변동성 상관관계 지속 모니터링 필요. 미성년 투자자 확대는 장기적 투자 문화 정착의 선행 지표로, 증권사의 미래 고객 기반 형성 측면에서 긍정적 구조 변화.
	(5/7) 국민성장펀드 5월 22일 일반 판매 개시…정부 손실 20% 보전·소득공제 혜택 정부가 5월 22일부터 국민성장펀드를 일반 국민 대상으로 선착순 판매 개시 예정. 핵심 구조는 정부가 펀드 손실의 최대 20%를 보전해주는 원금 보호 장치. 3년 이상 유지 시 소득공제 혜택도 부여. 운용사 모집에 PEF 대거 지원했으며, 증권사 컨소시엄이 두각. 국내 주식 투자에 한해 혜택을 부여하는 구조로 증시 유동성 확대 및 장기 투자 문화 조성 목적."	**국민성장펀드 출시는 개인 투자자의 중장기 모험자본 투자 유인 강화 측면에서 증권업종에 긍정적:** 손실 보전 구조로 인해 주식 투자 리스크 회피 성향의 신규 투자자 유입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고객 저변 확대로 이어져 증권사 수익 기반의 중기 성장 동력 추가. 운용사로 선정된 증권사 컨소시엄은 펀드 판매 수수료 및 운용보수 수익 확보 가능, 개별사별 수주 현황 모니터링 필요. 소득공제 혜택이 장기 보유를 유도하는 구조인 만큼 단기 거래대금 증가보다는 중장기 예탁자산 증가 및 수수료 기반 수익에 기여할 것.
보험	**(5/6) 5세대 실손 6일 출시…GA 판매 신중모드·보험사 계약재매입 '권유' 금지** 5세대 실손보험이 5월 6일 공식 출시. 비중증 비급여 본인부담 50%·도수치료 등 보장 제외·보험료 1·2세대 대비 절반 이상 절감이 핵심. 보험사들은 GA(법인 대리점) 채널을 통한 적극적 판매보다는 신중한 접근 모드. 당국은 계약재매입(구세대→5세대 전환) 시 보험사의 적극적 '권유' 행위를 금지, 소비자 자율 판단에 맡기는 방향. 계약재매입은 기존 1·2세대 가입자 대상, 전환 시 보험료 3년 50% 할인 혜택은 하반기 시행 예정.	**5세대 실손 출시의 단기간 보험사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 보험사의 GA 판매 신중모드는 보수적 영업 기조 전환을 시사, 직판·온라인 채널 중심으로의 영업 재편이 진행될 여지. 계약재매입 권유 금지 규정은 보험사 영업 행위에 대한 규제 강화 기조의 연장선, 단기 신계약 확보 전략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나 장기적으로는 민원·분쟁 감소 기여 예상. 5세대 보험료 구조 및 갱신 주기 하에서 회사별 경쟁력 차별화가 신계약 점유율에 미치는 영향을 향후 월별 신계약 지표를 통해 추적 필요.
	(5/8) 렌터카 대차료 5년새 30% 급증…손해보험 손해율 악화 추가 요인 부상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 지급 보험금 중 렌터카 대차료(사고 차량 수리 기간 중 지급) 항목이 5년 사이 30% 급증한 것으로 집계. 렌터카 업계의 일평균 임대료 상승, 수리 기간 장기화, 고급 차량 사고 증가 등이 복합 원인. 이미 1Q26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85~86%대로 손익분기(80%) 대폭 상회 중인 상황에서 대차료 급증이 손해율 추가 악화 요인으로 부상. 자동차보험 손해율 정상화의 구조적 난이도가 단순 보험료 인상만으로는 해결 불가한 수준.	**자보 손해율 정상화는 장기화될 가능성을 시사:** 정비 수가·부품비 통제와 달리 대차료는 렌터카 시장의 공급·수요 역학에 의해 결정되는 만큼 보험사의 직접 통제력이 제한적, 구조적 개선에 한계 상존. 자동차보험 적자 구조가 장기화될수록 손보사의 자동차보험 부문 투자 유인 감소 및 보험료 인상 사이클 반복 가능성 증가, 2Q 이후 손해율 추이가 손보주 투자 판단의 핵심 체크포인트. 5부제 할인특약 도입, 5세대 실손 출시 등 정책 변화 영향 분석이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

자료: 언론 보도, 삼성증권

1. 2 금주의 주요 Event check

Sector	국내	해외
2026-05-11 (월)		미국 4월 기존주택판매
		미국 3년 만기 국채 입찰
		중국 4월 소비자물가지수·생산자물가지수
2026-05-12 (화)	국무회의 개최	미국 4월 소비자물가지수
	KDI 경제동향	미국 4월 NFIB 소기업 낙관지수
		미국 주간 ADP취업자 변동
		미국 10년 만기 국채 입찰
		독일 5월 ZEW 경기기대지수
		독일 4월 소비자물가지수(CPI) 확정치
		일본 BOJ 금융정책결정회의 요약본
2026-05-13 (수)	4월 고용동향	미국 4월 생산자물가지수
	3월 통화 및 유동성	미국 주간 MBA 모기지 신청건수
	KDI 경제전망	미국 주간 원유재고
		미국 30년 만기 국채 입찰
		유로존 1분기 국내총생산(GDP) 잠정치
		유로존 3월 산업생산
		독일 3월 경상수지
		영국 3월 실업률
		일본 3월 경상수지
		일본 4월 은행대출
		일본 4월 경기현황지수
2026-05-14 (목)	옵션만기일	미국 4월 소매판매
		미국 4월 수출입물가지수
		미국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미국 3월 기업재고
		영국 1분기 국내총생산(GDP) 예비치
		영국 3월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영국 3월 산업생산
		중국 4월 광의통화(M2)
2026-05-15 (금)	4월 수출입물가지수 및 무역지수(잠정)	미국 4월 산업생산
	4월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	미국 옵션만기일
		미국 5월 뉴욕주 제조업지수
		미국 주간 원유 채굴장비 수
		일본 1분기 GDP
		일본 4월 생산자물가지수
		일본 4월 공작기계수주(예비치)
		중국 1분기 경상수지(예비치)

자료: 삼성증권

Company event	국내	해외
2026-05-11 (월)	삼성증권 실적	
2026-05-12 (화)	미래에셋증권, 한화생명 실적	
2026-05-14 (목)	삼성생명, 삼성화재, 메리츠금융지주 실적	
2026-05-15 (금)	현대해상 실적	

자료: 각 사, 삼성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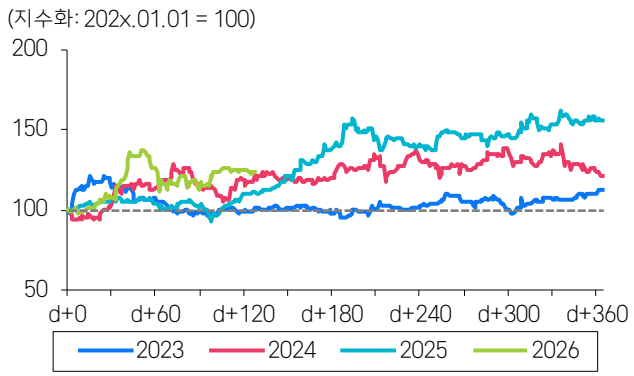
1.3 주가 Performance

업종	종목	시가총액	주가	2026E					주가 Performance (%)			
				주주 환원율	PBR	ROE	PER	EPS Growth				
		(조원)	(원)	(%)	(배)	(%)	(배)	(%)	1W	1M	1Y	YTD
지수	코스피	5,958.9	7,498.0						13.6%	27.7%	190.7%	77.9%
	KRX은행	208.3	1,609.2						(1.4%)	1.8%	73.7%	23.4%
	KRX증권	110.2	3,146.8						17.2%	14.6%	246.3%	105.7%
	KRX보험	109.6	3,469.3						6.1%	7.4%	91.4%	29.6%
	결제 지수**	1.538	n/a						(2.9%)	10.2%	69.4%	17.1%
은행	KB금융	60.3	161,700	57.1	1.0	11.4	8.8	12.9	0.7%	3.7%	71.1%	29.7%
	신한지주	46.5	98,000	53.6	0.8	10.4	8.4	15.5	(1.9%)	1.3%	92.5%	27.4%
	하나금융지주	34.7	126,500	50.8	0.8	10.6	7.8	12.3	(1.1%)	8.0%	95.5%	34.4%
	우리금융지주	24.1	32,850	44.5	0.7	10.6	6.9	12.1	(1.5%)	(1.6%)	86.4%	17.3%
	기업은행	17.4	21,800	36.0	0.5	8.5	6.7	2.2	(3.5%)	(0.9%)	44.1%	4.1%
	BNK금융지주	5.6	17,900	45.1	0.5	8.3	6.3	9.5	(4.4%)	1.4%	72.9%	12.8%
	JB금융지주	4.9	26,050	42.2	0.5	9.5	5.7	21.9	(4.6%)	(14.7%)	52.8%	1.6%
	iM금융지주	3.1	19,100	51.8	0.8	13.2	6.5	6.6	0.0%	12.0%	83.8%	22.8%
	카카오뱅크	11.3	23,650	50.0	1.5	8.8	18.2	29.1	(2.9%)	(4.8%)	2.4%	9.5%
증권	미래에셋증권	44.5	79,600	60.9	2.7	12.9	22.0	17.5	22.8%	17.6%	556.9%	242.4%
	NH투자증권	13.0	36,600	41.1	1.4	12.9	11.2	14.9	8.8%	8.1%	138.7%	73.5%
	한국금융지주	15.0	268,500	25.0	1.2	14.2	9.7	-19.1	11.9%	12.3%	221.6%	66.0%
	키움증권	11.9	452,500	29.5	1.6	20.7	9.0	26.4	13.7%	(1.5%)	215.6%	56.3%
보험	메리츠금융지주	18.8	112,400	50.0	1.7	22.8	8.2	14.9	0.6%	(4.3%)	(7.4%)	(0.6%)
	삼성화재	22.3	499,000	45.1	1.0	10.1	10.9	12.0	8.2%	6.6%	32.0%	0.4%
	삼성생명	59.0	295,000	46.3	0.6	3.7	15.9	17.8	18.2%	23.7%	247.9%	87.2%
	DB손해보험	10.8	164,600	32.3	1.1	16.6	6.6	9.0	(1.8%)	(1.9%)	81.3%	25.6%
	한화생명	4.2	4,800	16.4	0.3	5.6	6.3	37.8	(1.7%)	(0.4%)	81.8%	47.5%
	현대해상	2.6	31,050	11.7	0.5	17.5	3.3	18.3	2.1%	2.5%	42.8%	0.8%
결제	카카오페이	7.7	57,000	n/a	n/a	6.9	60.8	180.2	2.3%	8.6%	91.9%	16.1%
	NHN KCP	0.8	18,750	n/a	n/a	17.9	12.9	28.8	(4.6%)	12.7%	142.2%	25.8%
	KG이니시스	0.3	11,120	n/a	n/a	7.1	5.4	9.9	(2.9%)	5.8%	26.7%	8.8%
	KG모빌리언스	0.2	4,975	n/a	n/a	10.3	5.3	12.1	(4.9%)	(1.1%)	15.6%	5.9%
	나이스정보통신	0.3	28,900	n/a	n/a	9.1	5.6	39.4	3.0%	17.2%	51.0%	14.0%

참고: 5/8 종가 기준
* 당사 커버리지하 기업 시가총액 합산 기준 (카카오페이 제외 기준)
자료: Quantiwise, 삼성증권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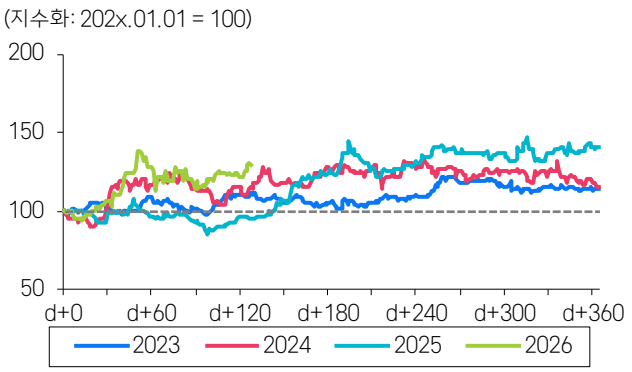
1.4 주가추이 - At a glance

은행 업종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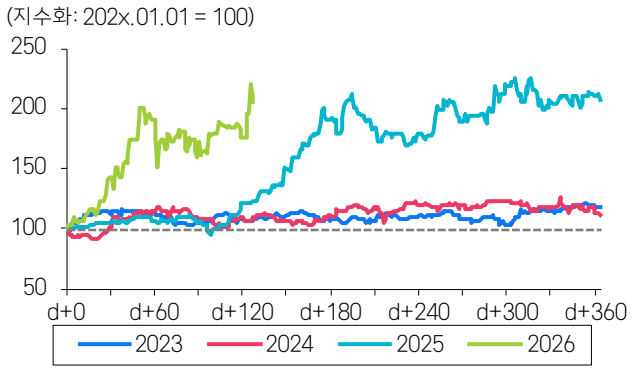
자료: Quantiwise, 삼성증권

보험 업종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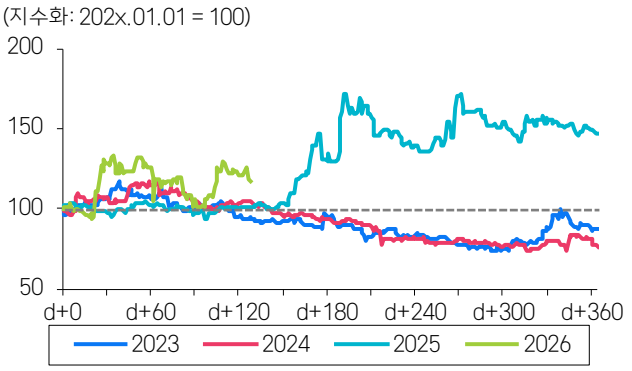
자료: Quantiwise, 삼성증권

증권 업종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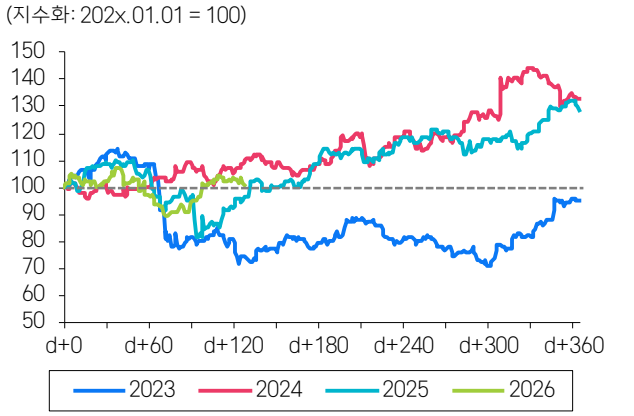
자료: Quantiwise, 삼성증권

결제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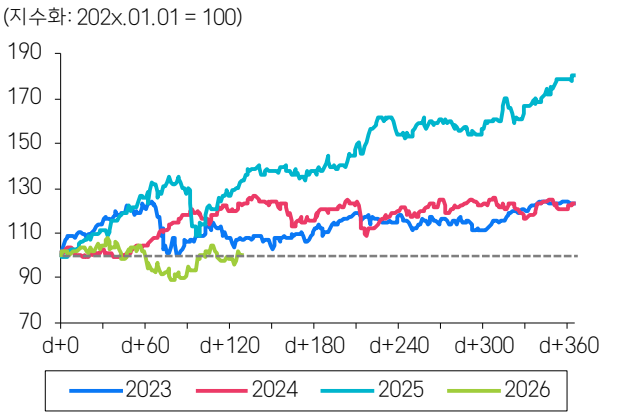
참고: 당사 커버리지하 기업 시가총액 합산 기준
자료: Quantiwise, 삼성증권

미국 은행 업종 지수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유럽 은행 업종 지수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1.5 해외 Peer 점검

Sector	지역	종목	시가총액 (USDb)	26E Valuation					주가 Performance			
				주주 환원율 (%)	PBR (배)	ROE (%)	PER (배)	EPS growth (%)	1W (%)	1M (%)	1Y (%)	YTD (%)
은행	미국	JP Morgan	809.5	80.2	2.2	17.1	13.5	11.5	(3.3)	(2.5)	19.4	(6.2)
		Bank of America	364.1	103.1	1.3	11.7	11.5	17.5	(3.6)	(2.3)	22.8	(6.7)
		Citigroup	214.1	117.2	1.1	9.7	11.6	54.8	(1.5)	0.9	75.7	7.6
		Wells Fargo	231.5	96.5	1.4	12.8	10.8	11.5	(6.4)	(11.4)	4.4	(18.8)
		PNC Financial	87.1	75.5	1.4	12.7	11.8	10.9	(1.7)	(1.9)	30.3	3.9
	유럽	Banco Santander	180.9	63.9	1.4	13.6	9.8	11.5	0.8	(0.5)	57.3	3.9
		Unicredit	125.1	82.1	1.6	16.8	9.4	6.3	7.4	2.9	31.1	(0.6)
		BBVA	125.4	86.1	1.8	18.8	9.3	15.8	0.6	(4.0)	47.7	(5.6)
		ING Group	87.8	80.9	1.4	13.2	10.9	8.5	3.2	3.9	41.3	7.2
		Lloyds	78.8	83.0	1.3	13.7	10.2	45.2	0.8	(1.9)	35.6	0.8
		Barclays	80.6	66.4	0.9	10.7	9.1	20.3	0.3	(1.4)	41.7	(8.6)
	일본	Mitsubishi UFJ FG	212.3	59.7	1.5	10.8	14.1	24.7	0.3	(1.2)	55.0	12.6
		Sumitomo Mitsui FG	135.3	53.9	1.4	10.8	13.4	37.6	0.1	0.2	61.9	10.0
		Mizuho FG	105.4	29.6*	1.5	11.4	13.9	39.0	1.0	(0.2)	84.6	18.8
	중국	Industrial Commercial Bank of China	372.4	30.2*	0.6	9.1	6.7	3.7	(1.6)	(0.7)	26.7	10.0
		China Construction Bank	299.2	29.8*	0.6	9.5	6.6	1.8	(0.2)	3.7	31.7	13.9
		Agricultural Bank of China	347.2	N/A	0.7	9.7	7.2	6.2	(2.3)	2.6	22.5	2.8
보험	미국	Berkshire Hathaway	1,028.3	N/A	1.4	5.9	23.1	(33.2)	1.0	(0.4)	(7.0)	(5.0)
		AIG	40.5	79.1	1.0	10.2	10.6	흑전	(3.1)	(0.7)	(7.3)	(10.7)
		Travelers Insurance	63.4	83.5	1.8	18.6	10.5	3.1	(2.2)	0.3	10.5	2.8
	유럽	Allianz	165.2	81.0	2.2	18.5	12.2	9.4	(5.1)	(2.2)	1.8	(5.5)
		AXA	100.9	59.6*	1.8	17.2	10.0	(9.8)	0.2	(0.2)	(1.5)	0.2
		Generalli	70.3	59*	1.7	14.0	12.8	10.4	2.2	8.4	11.9	8.9
	일본	Tokio Marine	86.7	40.1*	2.5	19.9	13.2	(2.0)	(0.9)	(0.9)	20.8	20.9
		Daiichi Life Insurance	33.2	58.9	1.4	12.4	12.5	(1.0)	1.1	(2.9)	34.9	10.4
	중국	Ping An Insurance	156.5	36.2*	1.1	13.7	8.1	6.1	4.1	4.5	41.1	0.7
		China Life Insurance	143.9	20.1*	1.3	19.4	6.8	(16.2)	9.2	15.1	109.8	14.2
		PICC P&C Insurance	42.3	38.2*	1.1	13.4	8.2	0.6	6.2	0.5	1.1	(9.0)
증권	미국	Goldman Sachs	287.1	107.5	2.5	16.3	15.8	15.7	1.4	3.2	65.1	6.5
		Morgan Stanley	304.6	73.0	2.8	17.7	16.3	16.4	1.5	8.7	58.7	8.8
		Charles Schwab	158.6	99.2	3.3	23.4	15.2	25.1	(3.2)	(6.5)	4.9	(11.3)
		Robinhood	69.4	41.2	6.6	18.6	39.5	(4.8)	4.6	11.3	41.0	(31.9)
카드	미국	American Express	215.6	N/A	6.2	35.0	17.9	14.7	(1.1)	0.8	11.1	(14.6)
결제	미국	VISA	615.4	N/A	17.8	66.0	24.9	25.3	(2.8)	4.7	(9.6)	(9.1)
		MasterCard	437.9	17.9*	50.7	222.5	25.5	17.5	0.0	(0.6)	(12.9)	(13.2)
		PayPal	40.0	5.5*	2.0	23.4	8.9	(5.3)	(10.1)	0.3	(35.4)	(22.3)
	유럽	Adyen	35.0	N/A	4.6	21.3	23.9	17.5	(1.6)	9.8	(40.5)	(31.4)
핀테크	미국	Block	44.5	N/A	1.9	9.8	28.7	24.1	4.2	20.3	48.6	15.0
		Upstart	2.8	0*	3.4	19.1	32.4	98.8	(11.5)	6.2	(38.6)	(33.8)
		Affirm	21.5	0*	5.1	11.1	54.3	686.2	(5.2)	31.9	37.9	(14.0)
	중국	LuFax	1.7	N/A	0.0	(0.1)	(3.1)	흑전	0.0	3.7	(28.8)	(23.8)

참고: Bloomberg 컨센서스 기준, 5/8 종가 기준
* 현금 배당성향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Compliance notice

-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히 반영되었습니다.

삼성증권

삼성증권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삼성전자빌딩)
Tel: 02 2020 8000 / www.samsungpop.com

삼성증권 Family Center: 1588 2323

고객 불편사항 접수: 080 911 0900

Member of
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
Powered by the S&P Global CSA